

두바이 정부,
두바이월드 관련 지원 대책 발표

□ “나킬”의 이슬람채권 만기 도래

- 두바이월드 사태 이후 시장의 관심은 12.14일 만기가 도래하는 두바이월드 자회사 “나킬”이 발행한 41억불 규모의 이슬람채권(Sukuk)의 상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음.
- 이슬람채권 만기 하루 전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였고, 두바이정부 또는 아부다비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하여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에서 두바이정부는 12월 14일 두바이월드와 관련한 일련의 대책을 정부 특별기구인 두바이 최고재정위원회(Dubai Supreme Fiscal Committee, SFC)를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

□ 두바이정부의 지원 대책 발표 내용 (12.14일)

- 아부다비 정부와 중앙은행이 두바이에 대한 중요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 동의하였고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두바이 월드의 채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두바이 재정지원기금(Dubai Fianacial Support Fund)”에 100억불을 지원하기로 함.
- 새로운 지원기금의 첫 사용처는 12.14일 만기도래하는 나킬의 채권 41억불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기금은 '10. 4. 30일까지 이자상환 및 운전자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
- UAE 중앙은행은 UAE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

- 두바이 정부는 “포괄적인 구조조정 법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법령은 두바이 월드와 그 자회사가 채권자와 채무구조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 사용될 것이고, 투명성 확보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기초를 두게 될 것임.
- 두바이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향후 전망

- 12월 14일 발표된 두바이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두바이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채권단과의 채무상환 유예를 둘러싼 협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UAE 중앙은행을 통한 현지은행 유동성 지원 등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두바이사태가 UAE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 두바이월드와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아부다비정부의 두바이 정부소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두바이, 아부다비 정부 간 물밑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두바이 사무소 제공>